

2023. 12. 6.(수) 10:00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정 에 대 한 질 문

- ☐ 김제시 지방보조금 현황 관련
- ☐ 김제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관련



최 승 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평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과 밀접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단체·개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말합니다.

우리 김제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보면
재정공시 결산 기준
2020년 약 738억, 21년 808억, 22년도 894억으로,
1조원 시대의 문을 연
시 예산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김제시에 맞는 지역현황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역성과 자율성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지방 가용재원 축소,
지방보조사업 수의 증가로 인한 관리 및 평가 문제,
보조사업자들의 권리화로 인한 삭감 및 일몰 불가능 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 · 집행 ·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정비안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우우수 및 우수는 계속 지원하며 필요시 증액,
보통은 유지
미흡은 10% 이상 삭감 검토,
매우미흡은 20% 이상 삭감 및 제외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의 2022년 김제시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은 30개 사업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편성 시
삭감이나 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성과평가 기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우리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특히 제조업 및 농업 분야 등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고,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비자 발급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비자제도 확대 등

친(親)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도청도 법무부와 함께

올해 3월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우리 김제시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제에는 행안부 기준
취업관련 비자로 1,700여 명
결혼 및 가족관계 비자로 약 800여 명
유학, 회화강사, 비즈니스 등
총 4천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며
이는 시 인구의 약 5%에 육박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속적 증가세에 발맞추어
행정서비스 수요가 예상되는 바,

김제시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23년 78명에서
24년 상반기에만 28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 및 어학능력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당초 배정된 쿼터보다 감소한 주변 시군과 다르게

우리 김제시는 110명에서
160명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인재의 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해
살아 숨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교류 및 새터민 업무는 총무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인력과 관련된 비자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가족복지과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가
사업부서별로 나뉘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책개발 및 업무추진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정부 기조와 더불어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의 미래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바,

더 적극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제시의 외국인 정책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